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5. 30 | 통권 제50호(2014-02) |

최근 실물경제와 고용지표 간의 연계 변화

[요약]

- 경제성장은 고용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연계성의 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용성고가 경제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지나고 2003~2005년 내수위축을 거치면서 성장·고용 연계성이 다소 불투명해짐.
-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을 분리하여 성장·고용 연계를 살펴본 결과, 연계성의 방향이나 강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기 이후인 2010년부터 부문 간에 상이하게 나타남.
- 2010~2012년간 내수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운수업의 성장·고용 연계가 크게 약화되었고 2013년 중에는 다시 회복한 반면, 제조업의 성장·고용 연계는 약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성장·고용 연계는 다소 약화됨.

문제제기

- 경제성장과 고용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생산함수상의 이론적 논의로 보나 실증적 증거로 보나 일종의 상식으로 통용되어 왔음. 그러나 1990년대 ‘고용 없는 성장’ 혹은 ‘고용 없는 경제회복(jobless recovery)’ 현상이 관측된 이래 성장·고용간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에 비해 ‘고용’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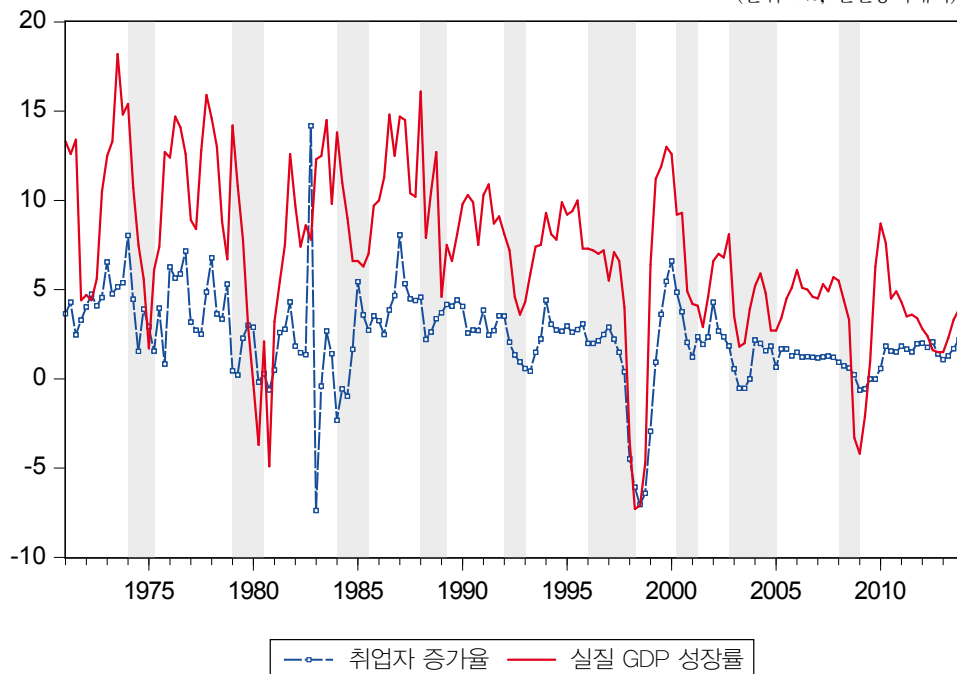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 성과와 고용성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GDP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전체 → 부문별 → 업종별로 보고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경제전반의 성장·고용 연계 추이

-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전통적으로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동행하였지만, 최근 들어 각 변수의 변동폭은 좁아진 한편 관성(지속성)은 강해진 양상을 보임.
-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취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및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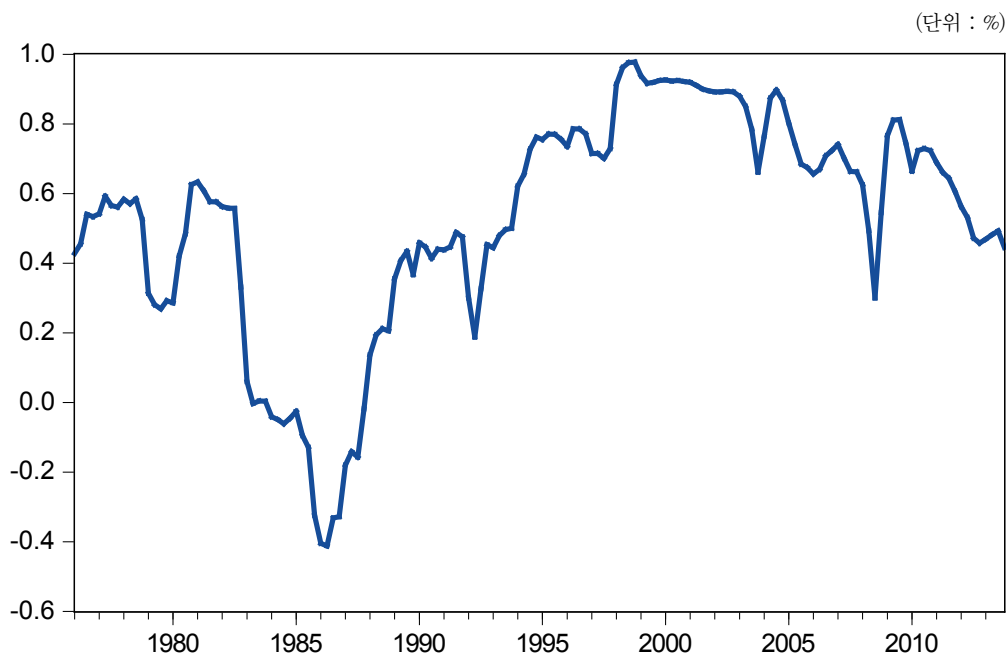
업자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변동폭이 줄어들고 시간에 따른 지속성이 다소 강해졌으며, 2003~2005년의 내수위축기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반응의 민감도가 낮아지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성장·고용 간 중단기적 연계성이 약해진 것으로 보임.

- [그림 2]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간의 연계성을 요약한 5년 단위 이동상관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의 관계가 관측되었으며 1998~2004년간은 1에 근접한 성장·고용 연계를 보이다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락세를 나타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성장·고용 연계의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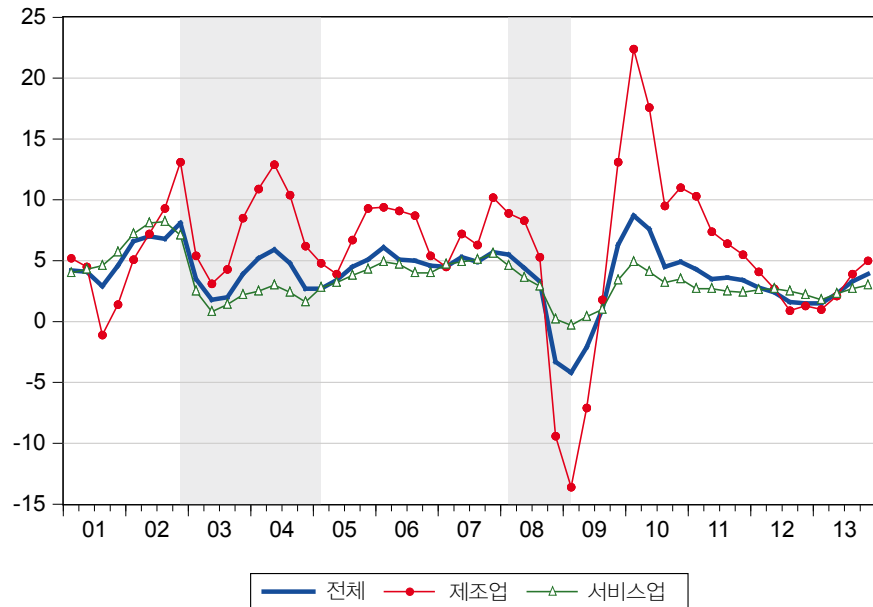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을 제조업·서비스업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2001년 이후 표본에서 제조업 성장률의 수준과 진폭이 전체 GDP 성장률을 주도하였으며 다만 내수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기에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임.
 - 2001년 이후 두 차례의 경기하강기 중 카드대란에 이은 내수위축인 2003년 순환기 중에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보다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외부충격인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순환기 중에는 세계경기 급랭에 따라 제조업이 GDP 하락을 주도함.

[그림 2]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간의 이동상관계수



[그림 3] 부문별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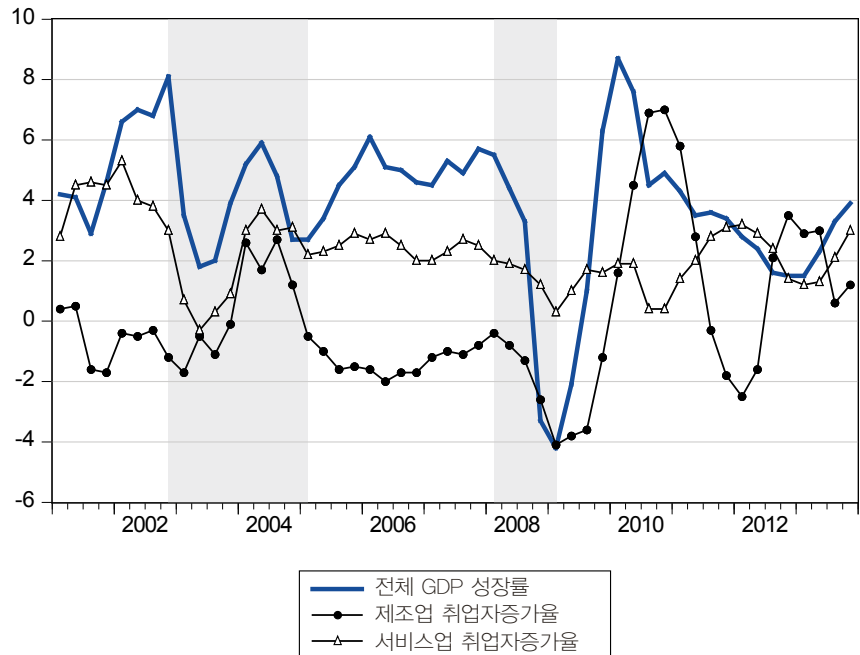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부문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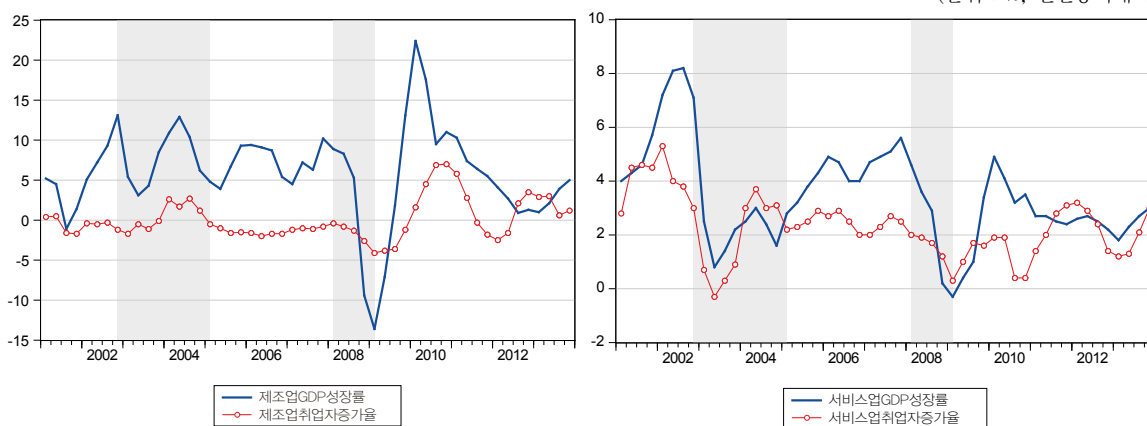
주 :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 마찬가지로 취업자 증가율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업의 고용성과를 살펴보면(그림 4 참조), 불황의 성격에 따라 부문별 차이점이 발견되며 2003년 순환기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 하락을 주도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전체 취업자 증가율 하락폭보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게 떨어지는 등 경제충격 요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이 본격화된 시기인 2009년 말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 2009년 말부터 고용회복은 제조업 부문에서 주도하였으며, 다시 제조업 고용이 둔화로 반전된 2011년 1분기에는 서비스업 고용 상승이 이를 상쇄하여 2012년 1분기 -2.5%까지 떨어진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2.0%를 기록함.

- 각 부문별로 성장·고용 성과를 살펴보면(그림 5 참조), 2010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취업자 증가율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비스업 내에서 성장·고용 연계성이 약해진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2000~2008년 중 7%대의 산업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감소가 완만하게 지속되었던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업자 증가율 감소폭이 산업성장률 하락폭보다 훨씬 적었고 이후 회복기 중 매우 빠른 취업자 증가율을 보임.
 - 서비스업은 2003년 내수위축의 타격이 그대로 취업자 증가율에 반영되었고 이후 2000년대 대부분의 기간에서 산업성장률과 등락을 함께하는 등 성장률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산업성장률과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연계성이 약화된 양상임.

[그림 5] 부문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좌 : 제조업, 우 : 서비스업)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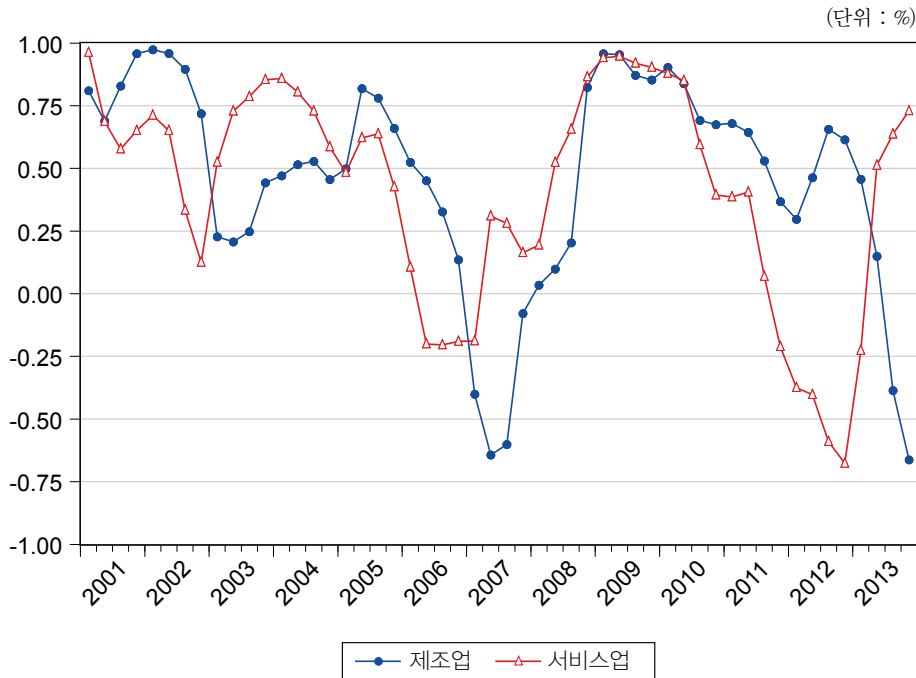
주 :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이러한 변화를 동일한 척도로 놓고 비교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산업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간 10분기 단위 이동상관계수를 구해보면(그림 6 참조), 대체적으로 등락을 함께해왔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고용 연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괴리가 심화되어 현재까지 서로 반대의 부호로 나타남.
 - 2013년 초반부터는 서비스업의 성장·고용 연계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돌아선 반면, 제조업은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냄.

서비스업의 성장·고용 연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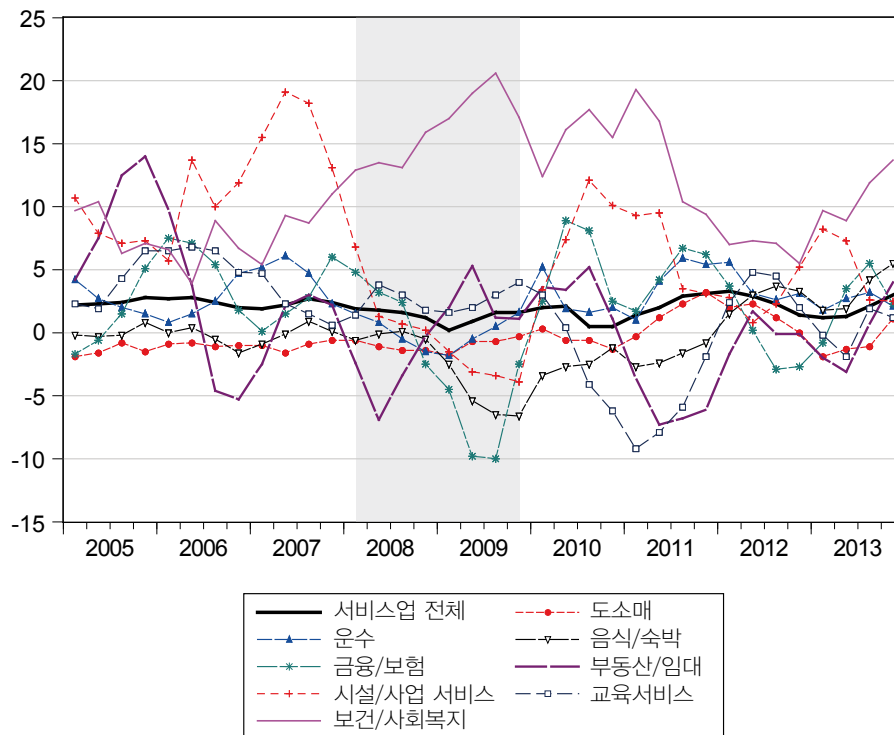
- 서비스업 부문의 전반적 고용성과는 특정업종이 주도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내수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 및 운수업종 등의 경우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과 대체로 동행함(그림 7 참조).
 -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세부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0.56), 운수업(0.54), 교육서비스(0.39) 등이 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0.65로 오히려 반대로 움직임.
- 7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2014년 3월까지의 취업자 증가율과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을 활용하여 2년 단위 이동상관계수로 성장·고용 연계를 요약함(그림 8 참조).
 - 내수위축기인 2003~2005년 불황 중에는 각 서비스 업종 간 성장·고용 연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반면, 외부충격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성장·고용 연계가 비슷한 수준에서 약한 양(+)의 부호를 띠었음.
 - 2003~2005년간 생산지수 증가율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살펴보면, 성장실적이 함께 악화되는 와중에도 도소매업은 업황악화가 취업자 증가율 감소로 이어진 반면, 금융·보험업은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생산지수 증가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점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9년 이후 회복기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성장·고용 간 연계가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초부터 이미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의 성장·고용 연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년 후에는 회복기 중 가장 강한 성장·고용 연계를 보였던 도소매업과 운수업 역시 연계가 크게 약화됨.
 - 2013년 초반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의 성장·고용 연계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운수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여전히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보건·사회복지업 역시 양(+)의 상관관계에서 음(-)으로 연계가 약화됨.

[그림 6] 부문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간 이동상관계수



[그림 7] 각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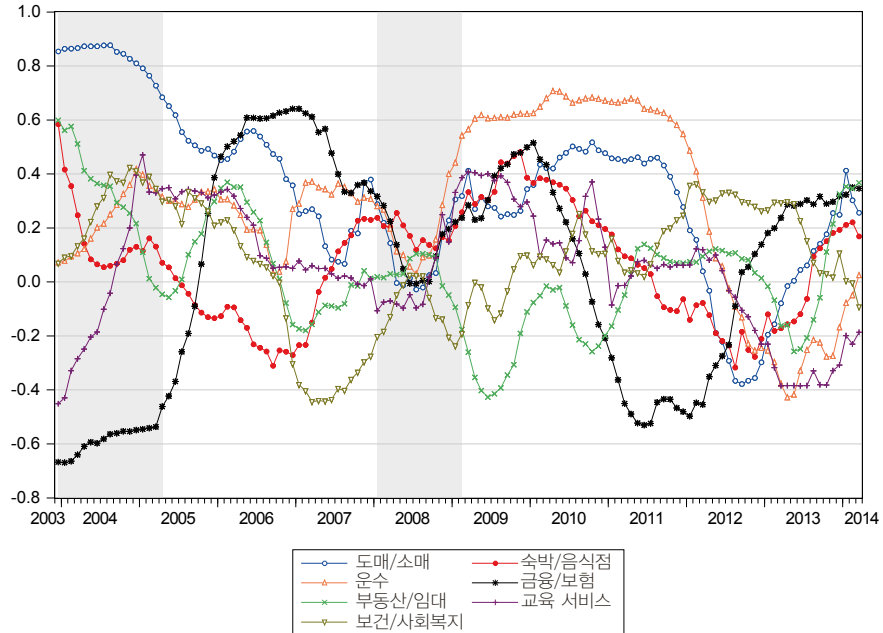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간 이동상관계수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종합평가

- 우리나라는 대체로 성장·고용 간의 연계가 양 (+)의 상관관계로 존재하는 편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연계의 강도와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0년 이후 서비스업의 성장·고용 연계 약화를 주도한 업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은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내수의존 업종이라는 점이 특징임.

- 2012년 말~2013년 초부터 시작된 현재의 경기회복 중에는 내수부문의 고용연계성이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때 제조업의 경제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반응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향후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02-3775-5590 / baekj@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